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4. 여름호

173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4년 여름호 통권 173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4년 9월 20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김도희 박지원 정유주(내부) 김보영 김현지 이주원 이지혜(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승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피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는 추석이 지나고서야 여름호를 펴냅니다. 늦게 도착하는 만큼 다양한 소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으니 회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평온함은 한순간에 깨지기도 합니다. 밤중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나 누군가의 다급한 위험 알림은 단잠을 깨웁니다. 어느 곳에서는 빗소리 대신 폭격 소리가 들리고, 스마트폰 작은 창 안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이미지가 불특정다수를 위협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신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호에서는 ‘오월에서 유월로’라는 이름 아래 시민들과 함께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식과 제37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 그리고 민주주의 다시 세우기 장승 문화 한마당 내용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며 열린 학술 심포지엄 <AI시대, 민주주의와 만날 준비> 현장 스케치도 실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가 위협당하는 지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며 일상과 밀접한 언론의 민주주의도 이야기해봅니다.

민주공원이 자리한 산복도로, 원도심이 배후지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항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봄비가 내리는 중에도 왁자지껄 신나게 놀았던 어린이날 모습도 담았습니다. 개관 25주년을 맞아 열고 있는 사진·이야기 공모전 수상작도 지면에 펼쳐보입니다. 공모전은 10월 31일까지 진행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공원 장승터에 민족자주대장군과 민주평화여장군 장승을 세웠습니다. 두 장승이 샅된 것으로부터 민주공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소망하며 여름호를 펴냅니다. 🇯🇵

목 차

04

4대항쟁

오월에서 유월로

민주주의 다시 세우기 장승 문화 한마당

6월민주항쟁 37주년 초청 기획공연 꽃다지콘서트 <당부>

AI시대, 다가올 미래 말고 만들어 가야 할 미래 _정수진

12

민주공원

2024 민주공원 어린이날 놀이터

부산 원도심, 시민중심의 항해장(航海場)으로 _홍순연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❷ 부산근현대역사관 _이지혜

24

더: 나온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길에 '나'를 세우자 _남영란

윤석열의 친일매국 행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_김동윤

언론장악, 언론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_김보영

36

회원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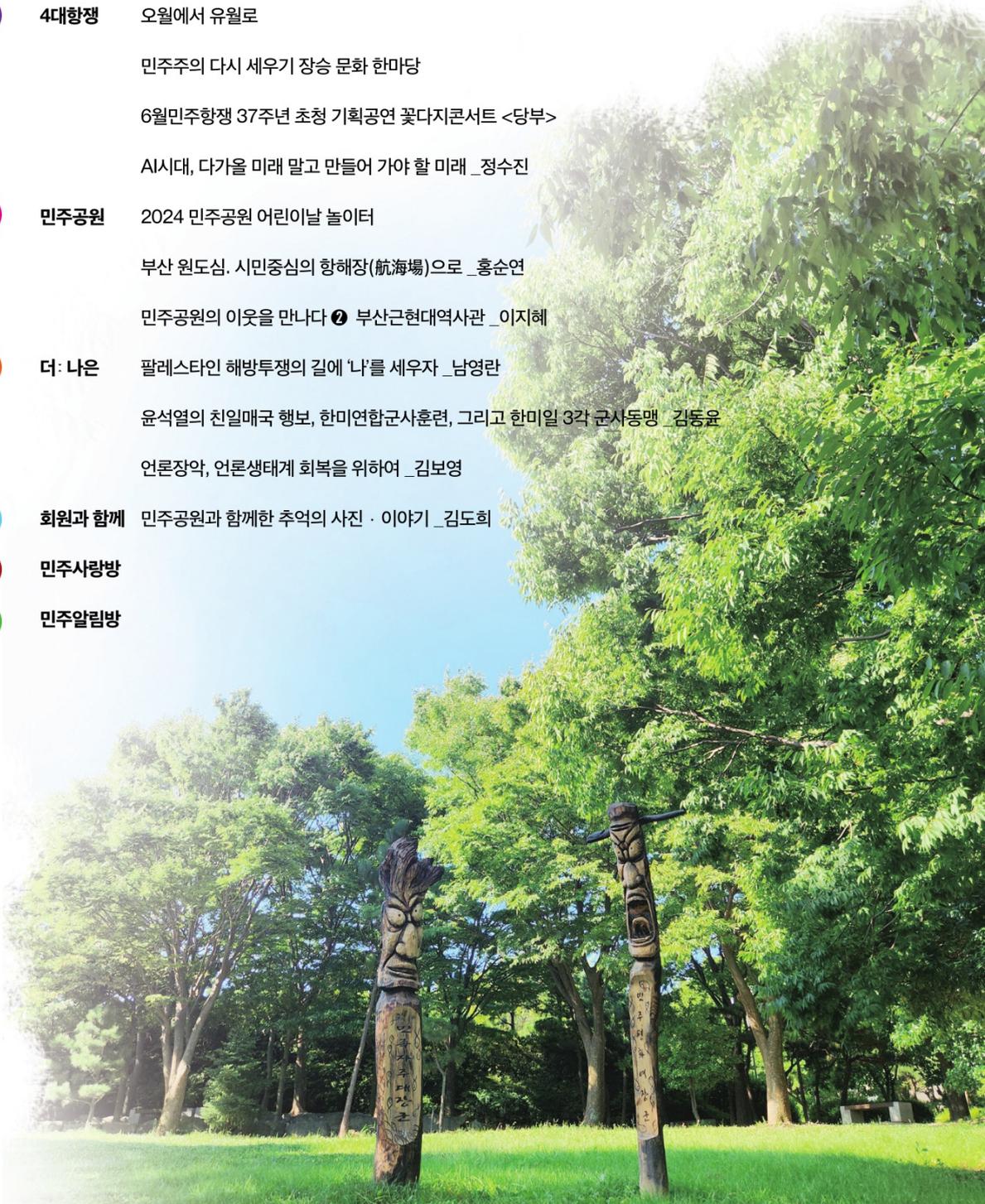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 · 이야기 _김도희

38

민주사랑방

40

민주알림방



오월에서 유월로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식을 5월 18일(토) 오후 5시 30분부터 민주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민주주의행동“오월

에서유월로”추진위원회와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부산지부가 공동주관했습니다.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큰방(중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남 지역과 부산의 경과를 영상으로 살펴보고 광주 박 네 번째 희생자인 故 임기운 목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광주 박 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시기를 전후해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 퇴진과 광주학살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숨진 민주열사들을 지칭합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광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부산지부 前 지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종철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하고 참석자 모두가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0년 5월, 불의한 국가권력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민주주의 사수의 외침은 44년이 지난 2024년 지금에도 필요합니다.”라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길에 오월정신을 기치로 세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에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10

제37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

6월민주항쟁 제 37주년을 맞아 제 37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을 6월 8일(토) 열렸습니다. 비 소식으로 부산기념식은 넉기림마당에서 큰방(중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아이씨밴드의 여는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이 1987년 6월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고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에 부역하며 민주화를 막아서는 데 앞장섰던 자들을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를 위해 애쓰고 목숨을 바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뜻이 빛바래지 않도록 기념하고 계승하며 후대에 전달해야 합니다."라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혜지 연주자의 생황 독주에 이어 제천간디학교 몸짓패 지지개의 몸짓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민주항쟁기념관 1층 로비와 큰방에는 6월민주항쟁 당시 구호와 그 정신을 이어받는 여러 구호가 적힌 기를 달았습니다. 🇯🇵



민주주의의 다시 세우기 장승 문화 한마당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6월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맞아 민주공원 장승터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 줄 두 장승 '민족통일대장군'과 '민주평화여장군'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세우는 <민주주의의 다시 세우기 장승 맞이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5월 18일(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식과 장승이 될 나무를 들여오는 민주주의의 다시 세우기 장승 맞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해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이 고천문을 낭독하고, 장승이 될 나무를 목도꾼들이 옮겨와 주위에 금줄을 치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적은 소원지를 금줄에 걸었습니다.

나무를 장승터로 들여오고 제37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까지 시민들과 함께 장승을 만드는 <민주주의의 소도거닐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나무를 깎고 색칠하고 각인을 하며 마음을 모아 장승을 만들었습니다.

6월 8일(토)에는 지난 5월 18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식과 함께 열린 민주주의의 다시 세우기 장승 맞이 한마당부터 시민과 함께 만든 민족자주대장군과 민주평화여장군을 세우고 땅을 다진 후 고사를 지냈습니다.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두 장승이 장승터에 잘 설 수 있도록 흙을 밟으며 땅을 다졌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두 장승은 앞으로 민주공원 입구에서 민주공원은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





6월민주항쟁 37주년 초청 기획공연 꽃다지콘서트 <당부>

6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6월민주항쟁 37주년 초청 기획공연
꽃다지 콘서트 <당부>가 열렸습니다.

2014년 부산 콘서트 이후 10년 만에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무료관람 예매를 오픈한 당일 전석 매진이 될 만큼
인기가 많아 큰방 2층 객석도 열었습니다.

꽃다지는 콘서트에서 '바위처럼', 'Fighter', '불나비',
'전화카드 한 장' 등 20여 곡을 부르며
부산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





AI시대, 다가올 미래 말고 만들어 가야 할 미래

정수진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육중한 6월이었다. 어디다 비늘을 꽂아야 할지 모를 만큼 일정들이 촘촘하게 들어차는 중에도 ‘20’이라는 숫자에 그려진 동그라미는 선명하게 존재감을 뽐냈다. 6월민주항쟁 3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행여 놓칠세라 동그라미를 겹겹이 그려가며 기다렸다.

6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제법 큰 공간인 부산유리시아플랫폼 104호에는 <AI시대, 민주주의와 만날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조 발제와 함께 모두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고 나는 제3주제 “AI 시대, 인간의 일자리”의 토론을 맡아서 숙제 아닌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채웠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우고 행사가 시작된다. 개회사를 위해 나선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넉넉한 미소를 나눠주며 행사장의 긴장감을 풀어 준다. 역시 어디서나 웃음만한 게 없다. 6월 민주항쟁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함께 만들어오고 있는 민주주의사회연구소의 정대성 소장은 환영사에서



이 심포지움의 의미를 다시 짚어주었다.

이날의 기조발제는 이상욱 교수(한양대 철학과)의 “AI시대, ‘인간다움’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의 발표였다. 오랫동안 과학철학, 기술철학을 공부하고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의장단으로 있으면서 AI와 관련한 흐름을 읽고 계신 터라 AI의 특징에서부터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과 AI를 둘러싼 윤리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목에서는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결국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와닿았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어디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는 확장되고 미래는 가까이에 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 제1발표가 시작됐다.

현재환 교수(부산대 교양교육원)가 “한국의 ‘AI와 민주주의’ 논의 지형도-AI 민주화, 민주주의의 AI화, 혹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AI와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해 논의의 흐름을 조목조목 짚어줘서 반가웠다. “AI의 민주화”에서 더 나아가 낙관론의 극단적인 버전인 “민주주의의 AI화,” 그리고 “AI 시대 민주주의의 종말”과 이런 종말을 막기 위한 “AI 거버넌스의 민주화”로 구별해 살피면서 흥미로운 논의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AI 거버넌스론의 논의 가운데 인간중심주의를 문제 삼으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활동들이 AI라는 새로운 비인간 행위자를 어떻게 포섭하려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며 사물의 정치(politics of things)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앞서 이상욱 교수의 “AI시대, ‘인간다움’을 다시 생각한다”는 화두와도 연결되는 흥미로운 생각거리여서 더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에 밑줄을 그어두었다. 제1주제에 토론자로 나선 최이숙 교수(동아대 사회학과)는 향후 ‘AI와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민주주의’

의 그 자체 대해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들 속에 권력에 대한 인식, 가치와 이념, 정치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상 등이 각각 다르므로 자칫 ‘민주주의’로 포괄되어 버리는 지점에 대한 토론이었다. 또 AI 시스템의 운영 전반에서 젠더/인종/장애/성별/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이 지배하고 있음을 짚으며 토론의 말미에 중앙집권적 기술구조에 대한 파열음은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누가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저항은 어떻게 조직되는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 모두가 찾고 싶은 답은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 묵직한 울림이었다.

1주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도 발제자와 토론자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자들도 인사와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잠시 숨 돌리기 바쁘게 이어진 제2주제 발표는 ‘여성’이었다. “AI시대 성평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임소연 교수(동아대 기초교양대학)가 발표하고 김수진 박사(부산대 여성연구소)가 토론했다. AI는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연 AI는 성평등한 기술인지, 성평등에 기여하는 AI

는 어떻게 가능할지, 그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정리해 줘서 생생했다. 최근 AI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중에 '여성'의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는 내내 현장의 활동가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었다. 이어진 토론은 그야말로 속이 땀 뚝리는 시간이었다. 기술은 세상이 어떤 방향을 꿈꾸는지에 따라 달리 활용될 수 있다는 말, 생명이라는 삶 자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극한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 희망으로 다가왔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서로를, 혹은 자신을 돌보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발견하고 때로는 발명해야 한다는 말도 힘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는 “AI시대,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주제로 송성수 교수(부산대 교양교육원)의 발표가 열렸다. 지루할 틈 없이 유쾌한 스타일로 마지막 발표 순서임에도 참여자들의 눈을 반짝이게 해주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에서 강한 인공지능이나 초지능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자율주행차량과 인간 운전자, 리걸테크와 법조인의 사례를 빌어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은 과장되고, 자동화와 인간 노동의 상호 보완성은 무시된다”고 지적한 경제학자 오터의 말을 빌어 대체의 담론을 벗어나 보완의 담론에 주목해 공존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며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모든 과정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저항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장치들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

요가 있다는 말로 토론을 정리했다.

3가지 주제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사이 어느덧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이 시작되었다. 문성원 교수(부산대 철학과)의 진행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인간다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토론이 다시 이어졌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활발하게 오갔다. 오늘 이 자리의 주제인 “AI시대, 민주주의와 만날 준비”를 위해 더 뜨겁게 더 넓게 나눠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 답페이크에 대한 심각성, 이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학교 현장에 있다는 한 분은 점점 고립되고 파편화되는 현실에 대한 참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거대하고 강력한 무엇과 마주하고 있어서 지레 압도되거나 눈앞에 닥친 현안들에 밀려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려는 태도로 회피하기도 했다. 길게 이어진 심포지움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 참여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이자 실천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AI시대가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37년전 6월, 뜨거운 거리의 함성으로 외치던 민주주의가 이제 AI시대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







2024 민주공원 어린이날 놀이터

봄비가 보슬보슬 내린 5월 5일, 부산민주공원에서는 <2024 민주공원 어린이날 놀이터>를 열었습니다. 야외 프로그램은 모두 천막 안에서 진행하여 실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놀러 온 어린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민주공원 입구에 행사 안내 부스에서 미아방지팔찌를 착용하고 바로 옆 부스인 (사)부산민주항쟁사업회 부스에서는 회원가입과 간단한 참여를 통해 새싹 핀을 받아 머리와 옷에 예쁘게 꽂았어요. 장승터에서 민주공원 부채 만들기과 솔방울 던지기 놀이도 했답니다. 뉘기림마당에서는 평화책을 읽을 수 있고 남북 보드게임도 해볼 수 있었어요. 앞마당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디폼블럭 만들기, 팔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주항쟁기념관에 들어서면 1층에 중극장에서는 <고물나라 인형공주>를 관람하고, 소극장에서는 평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2층에서는 점자 명함을 만들고 전통놀이인 투호도 체험했습니다. 3층 잡은 펼쳐보임방에서는 <우리들의 상상으로 그리는 태극기 이야기> 전시도 보고 직접 태극기 상상화도 그려보았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도 <2024 민주공원 어린이날 놀이터>는 왁자지껄!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앞마당에서 공동체 놀이도 하고 동물 인형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사탕도 먹었어요. 조그마한 손으로 나비와 리본도 나만의 키링도 만들어봤습니다. 폐막공연으로 저글링과 마술쇼도 보았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어린이날에 민주공원을 찾아준 어린이 여러분 모두 고맙어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







부산 원도심. 시민중심의 항해장(航海場)으로

홍순연 | 주)로컬바이로컬 대표

부산은 항구 도시다. 부산 내항을 중심으로 항만이 조성되어 배들이 오고가고 다시 바다로 항해를 위한 정박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시 또한 항만시설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공간적 변화가 발생하여 교통, 토지이용, 기능과 건축물의 들어서면서 항만의 배후 지역은 지형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항만과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 낸 곳을 우리는 바로 ‘원도심’이라고 부른다.

원도심은 사전적 의미로 신규 개발에 의한 새로운 시가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초기 도시발전 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지역을 의미한다. 과거 업무, 상업, 행정,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중돼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의 삶의 질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된다. 특히 도시가 형성되면서 축적된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도심 내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 및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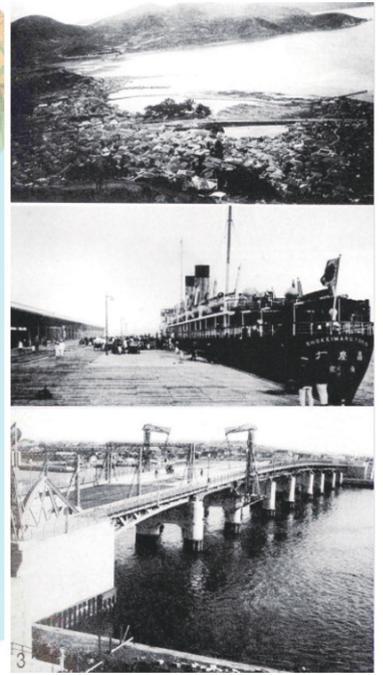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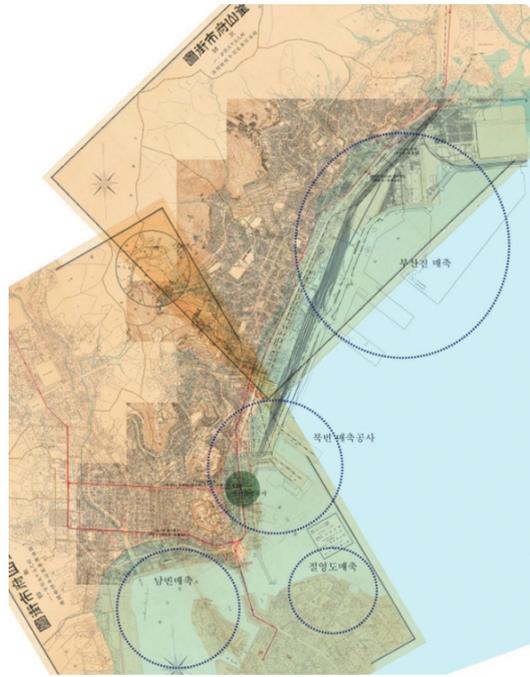
부산의 항만활동 시작과 원도심의 확장

일반적으로 항만의 정의는 바다 옆 또는 항구가 있는 강 위에 있는 도시 또는 선박이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내리는 부두 및 저장시설을 지닌 지역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지리적, 공간적,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어로나 항로는 고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관계성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항만은 상업, 산업의 연결성에 귀결됨에 따라 그 시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시계열적으로 근대기에 이르러 상업과 산업의 연관성에 따라 선박의 입항규모, 정박장소, 배후부지의 편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기능의 변화도 함께 해왔다. 이에 따라 항만은 배후교역을 위한 시장과 항만종사자 그리고 도시민들의 거주민까지 도시공간의 역할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시계열적으로는 총 4단계로 구분되어진다. 1단계는 1876년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을 의미하며 2단계는 일제강점기부터 8·15 해방시기, 3단계는 해방 이후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되는 이전인 1960년대 4단계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2년 이후부터 1990년대 국가성장 시기로 구분한다.¹⁾ 특히 1단계와 2단계는 부산의 주요 항만시설건축의 시기로 매축공사를 중심으로 항만의 기능을 재편성되었다. 대부분 개항과 함께 일본인들의 주도의 항만의 이용, 개발, 관리에 참여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 내 군사 거점의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주요 시설들 또한 1910년까지 항만수출과 세관 설비공사 착수하여 세관을 포함한 방파제, 잔교건설, 연안 매립, 물량장 설치, 창고 건설 및 준설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²⁾ 이후 1915년 총독부령 제72호 개항취체규칙을 제정하

1) 본 논문에서는 항만의 형성과 발전의 시작인 근대항만주변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단계와 2단계를 중점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2) 김의원, 한국국토개발사 연구, 대학교서, 1983, p548

여 부산을 비롯한 10개 항만을 외국선박 출입항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00톤급 항만을 보유하기 위해 항만의 시설 확장을 통해 원도심은 도시의 배후 부지로서 기반시설의 서비스 제공과 주요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건축장이 되었으며 항로와 교통망을 통한 항만과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진다. 사실 이러한 도시의 발전은 우리에게는 아픔의 역사와 함께 구축됨에 따라 강제적인 도시를 경험으로 기억되어진다. 하지만 이후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재활용되어 세계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어 보수동책방골목, 40계단, 점바찌골목, 영도다리 등 다시 역사와 삶의 중심에서 하나의 장소로 기억되어지고 있다. 이곳이 바로 원도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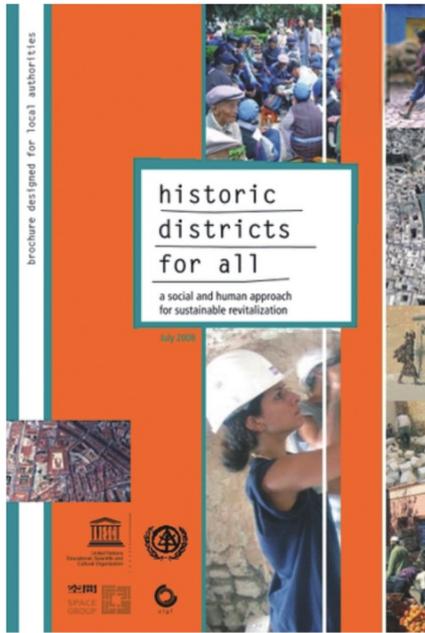
부산항 매출공사 위치도 및 당시 모습

원도심을 회복하는 인자들

부산의 원도심인 현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흔히들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이다. 2005년부터 근대 건축목록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5년마다 진행되어 자원들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건축적 자산과 역사적 관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건축자산으로 정립되면서 점적인 대상물이 면적인 계획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상물 또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대상물이었으나 최근에는 현대자산까지 포함하여 도심 내의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2023년에 정리된 역사문화자원을 살펴보면 원도심에는 부산 근대자산 206개 중 111개가 원도심에 집중되어있다. 그 외 또한 현대자산 또한 144개 중 경우 41개가 원도심에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 민주공원도 포함되어있다. 이제 이러한 대상물은 과거 문화재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나누어 기초 조사하여 사회경제적, 경관적 가치판단을 통해 향후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보존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작적인 변화에 따라 이를 위해서는 대상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즉,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들을 좀 더 폭넓은 시선과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의 영역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엮어내는 방법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스토리와 시계열적인 정의가 아닌 원도심이라는 틀 안에서 연결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관점을 변화시킨 자료가 바로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2007년에 발표한

<모두를 위한 역사지구: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간적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21세기 도심 내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어떻게 시민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존중과 함께 공공으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을 강조하는 것과 조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과 도시구조로서 연결성을 확보하기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기술, 사람, 문화, 환경 및 경제를 연결해야 할 필요성과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5가지의 키워드로서 원주민, 도시의 시스템, 지역의 공공성과 정체성,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관광자원화로 원도심의 자원의 연결고리를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주민은 관계성 회복과 거주자의 삶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도시의 시스템을 통해 역사 도시의 가치 평가와 도시 간의 소통 통합적, 순환적인 개발, 도시이미지의 향상, 다양한 매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보와 문화를 위한 토론과 교환의 장으로서 도시의 새로운 공간제공을 극대화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와 거주자 간의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개발을 통한 연계성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후 관광자원화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냄을 제안하였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도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원도심의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모두를 위한 역사지구: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간적 접근>

민주공원, 원도심의 시작점+연결점

민주공원은 원도심 내에 가장 높은 곳, 끝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원도심의 경관과 건축적 상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 민주공원은 지역의 건축학도들에게는 회전하는 램프와 그 램프와 대비되는 그림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하나로 이어지는 공간에 한번쯤은 압도했을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 설치된 조형물인 뜻기림 햇불은 하나의 이정표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듯하여 필수답사코스 중의 하나였다.

민주공원 홈페이지에 뜻기림 햇불의 소개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외부와 내부의 희생자와 산 자, 이상과 현실, 안팎이 일체가 되어 '민주'라는 하나의 공간을 승화하는 것을 보여주며 부산의 힘이 무한의 시공간으로 끝없이 비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원통형의 열린 공간에서 올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공간 연출과 외부의 여러 방향에서 공간에 떠서 비상하는 불꽃, 깃발, 돛대 등 각기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

설명처럼 민주공원은 상징과 시공간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원도심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사문화자원들을 다시 한번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민주공원에는 '부산 원도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 민주공원에서 출발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 원도심으로 내려가면서 보수동 책방골목, 초량왜관, 중부교회, 카톨릭센터, 근현대역사관 등 역사문화자원들 속에 숨은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관점 또한 민주(民主) 즉 사람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여 주목을 받고 진행한 처

음 사례라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확장하여 원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점과 시작점으로 민주공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활동이 원도심의 다양성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면 한다. 앞으로 민주공원 또한 기록과 상징의 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는 민주공원과 원도심이 함께 필드 뮤지엄으로 전환하여 참여자들의 활동력을 강화하여 과거와 현재의 원도심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과거 항만에서 배후부지 원도심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원도심에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항해의 장을 펼쳤으면 한다. 



[답사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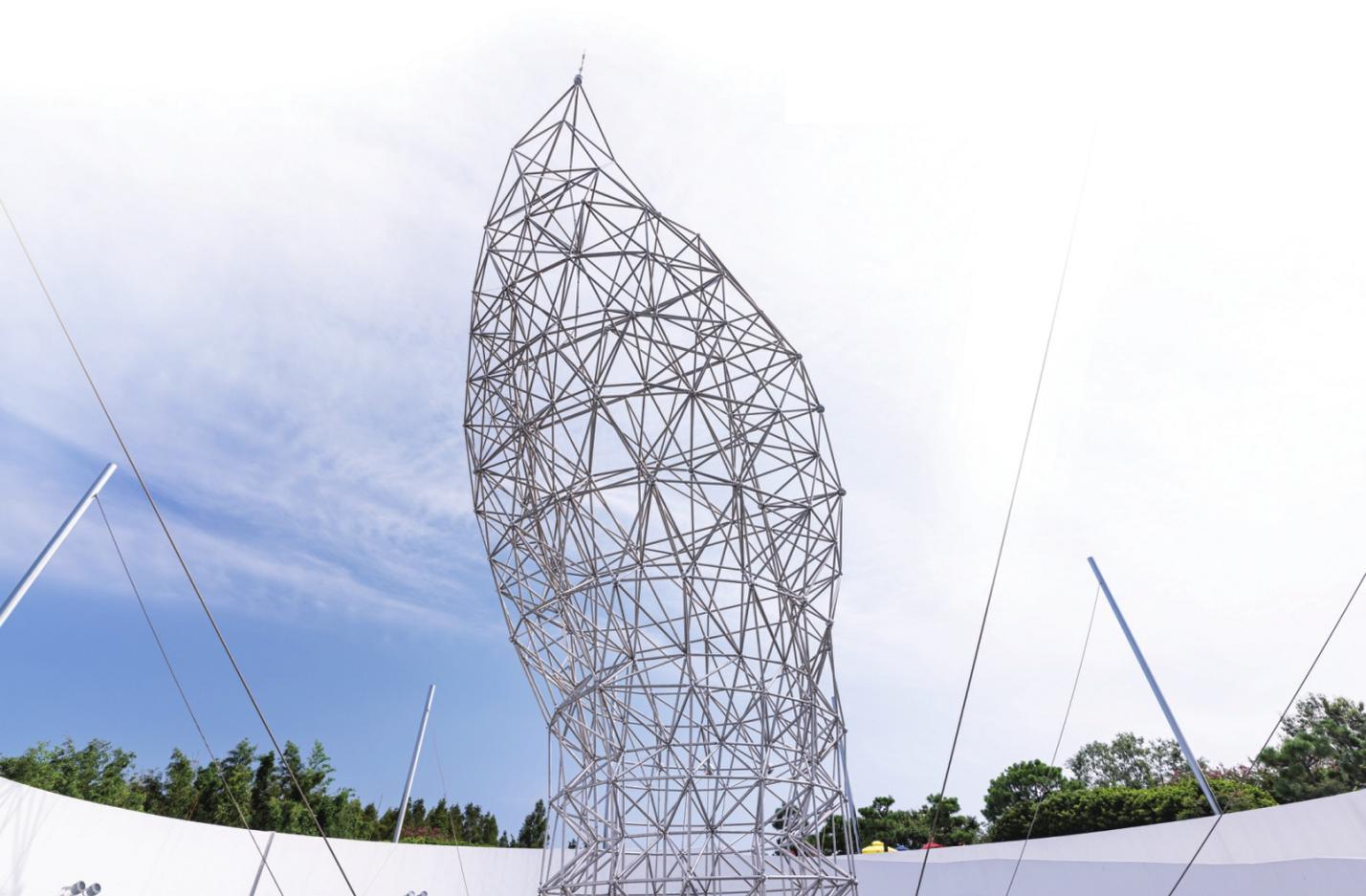
중앙동전철역(13번 출구/합동) - 해양박물관 - 영도다리 - 부산새관박물관 - 국제시장(점심)
- 보수동책방골목 - 임시수도기념관 - 민주공원 - 초량 이바구길

- 해양박물관: 바다가 숨 쉬는 부산을 만나다.
- 영도다리: 최초의 도계식 다리를 언제와? 환경이 왜 중요할까?
- 부산새관박물관: 새관에서 새는 무슨 일을 할까?
- 국제시장(점심): 국제시장 인어가 왔고, 만나게 됐! 날!
- 보수동책방골목: 책방골목과 민주주의 이야기
- 임시수도기념관: 시간적용 골때린 우람동사당들 사진전
- 민주공원
- 10월 18일: 민주주의 역사와 현대공간 큐라토스 음악회 관람
(관람: 5층창/국악 신내막(아무스틱))
- 10월 25일: 민주주의 역사와 차이를 만나다
- 초량이바구길: 도란도란 추억을 위하여...!



- *일 정: 10월 18일(토) / 10월 25일(토)
- *집결지: 중앙동 전철역(13번 출구 앞 / 9시40분까지 오세요.)
- *대 상: 초등학생/가족단위(선착순 40명)
- *이동수단: 45인승 전세버스
- *소요시간: 6시간(10시~16시/점심시간 포함)
- *선 정: 민주공원 홈페이지(민주서당)에서 신청서 작성 후 e메일 접수
- *e 메일: mlf@nongedui@demopark.or.kr
- *참가비: 무료(점심은 국제시장에서 가족끼리)
- *문의: 교육문화팀(051-790-7418)

2014년 민주공원 원도심 답사 포스터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② 부산근현대역사관

이지혜 | 부산관광공사 매니저, 본지 편집위원



근현대 역사를 한 걸음에, 부산근현대역사관을 만나다

역사를 거대 담론으로만 다뤄오던 시대는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해져 오는 소소한 이야기가 깊은 메아리가 되어 역사의 벽 앞에 부딪히고 흐트러지기를 반복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낡은 세계를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소시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여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힘은 이제 사회, 국가라는 거인이 내뿜는 포효보다 더 멀리 가며,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켜켜이 쌓여 비로소 거친 세월의 풍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다시 하나, 둘 빛을 발한다. 그 빛은 우리의 삶과 일상을 비춘다.

오늘은 부산 원도심에도 작은 목소리가 모여 부산을 일으키고 지켜 낸 일상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원도심은 임시수도기념관, 석당박물관, 국제시장, 보수동책방골목 등을 비롯해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역사의 본고장이다.

원도심, 그 중심에서도 가장 한가운데 남포동과 영도 등 부산의 동서남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용두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용두산공원의 랜드마크 부산타워에 오르면, 먹고 사는 것과의 전쟁 같은 고단함을 넘어 희망찬 활기로 가득 채운 자갈치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최초 개항지이자, 최고의 항구도시 부산의 면모를 품고 있는 북항 등이 발아래로 시원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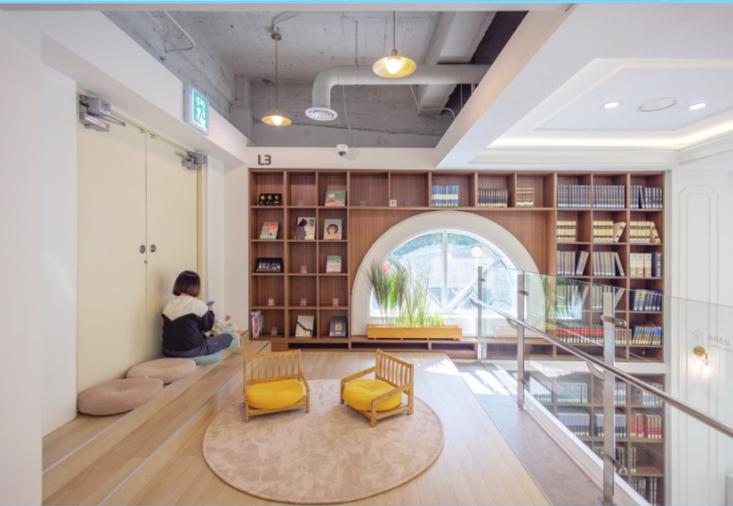
용두산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다 보면, 그야말로 레트로한 감성이 뿜어져 나오는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100년의 세월을 흘러 흘러 전해져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들을 조용히 지켜보던 공간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공간이 바로 '부산근현대역사관'이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새로운 힙 트래디션 성지로 떠오르다

1963년 지어진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올해 초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시민들의 작은 쉼터가 되었고, 은행의 '지하금고'는 부산의 문화와 예술이 지닌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장고로서의 '금고미술관'으로 환생하였다. 금지된 공간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변신하기까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두께 50cm, 무게 500kg에 달하는 철문은 미사일도 견뎌낼 정도로 견고하다. 지하 금고의 철창을 지나 각 금고로 연결된 복도 등 옛 모습을 보존해 만들어낸 독특한 전시장 분위기로 Z세대들의 또 다른 놀이문화 공간으로 힙하다.

'구 한국은행' 객장이 있던 1층 공간에는 부산의 문화를 만들고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부사노'라는 이탈리아어를 접목해 '부사노의 집' <까사부사노>가 들어섰다. 해운대, 광안리를 비롯해 부산 전역에 걸쳐 카페 지점들이 있지만 부산근현대역사관점은 브라운 컬러의 바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으로 고전적인 우아함과 동시에 근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더해준다. 특히 옛 금고 공간에 마련된 디저트 바에는 실제 골드바 모양과 똑같이 생긴 '골드바 케이크'가 공간의 특수성을 한층 더





잘 나타나고 있다.

<까사부사노> 옆에 위치한 다른 금고는 열린문화 공간으로 '한국은행 아카이브살'로 꾸며져 있다. 1900년대 초 최초 발행된 한국은행권 화폐 등 한국은행 부산 지점의 역사를 담은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기획전시실이 있고, 3층과 4층에는 1876년 개항 이후 근대사의 출발지이자 항구도시 부산의 근현대사를 한걸음에 돌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근대도시 부산'을 주제로 3층 제1상설 전시실은 개항 이후 부산항의 변천사와 전차가 다니던 부산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4층에 위치한 제2상설 전시실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대도시 부산'을 담았다. 피란수도 부산 시절을 지나,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성지 부산 등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겨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의 현대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다.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M2층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자리한다. 영어학습 프로그램 '영어랑놀자', 마도로스가 되어 배를 몰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꿈꾸는 부산항'과 옛날 옷을 입어보는 체험이 가능한 '에피의 집', 구포국수와 국밥을 만들어보는 '시장놀이' 등 부산의 근현대사를 테마로 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아이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부모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콘텐츠로 채워진 '들락날락'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하루 7차례 회당 50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부산광역시 통합 예약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니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부산근현대역사관 '모두의 별관', 열린 공간을 만나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착취할 목적으로 건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 해방 이후 미군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부산근대역사관 별관'으로 탈바꿈하여 많은 부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과 만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방화 사건 등 온갖 수난을 겪으며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결과, 2023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접목한 '라키비움(Larchiveum)' 콘셉트의 인문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별관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탁 트인 높은 층고의 라운지와 책으로 켜켜이 쌓아 올린 북트리와 마주하게 된다. 북트리를 지나면 1만여 권의 서적과 아카이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도서 공간인 '서가가 보인다'. 1층 공간에서는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북 콘서트와 문화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만날 수 있다.

2층 '대청마루'로 올라가면 마주하는 작은 전시 공간에는 리모델링 당시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구조의 독창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옥 카페를 연상케 하는 아늑한 분위기의 독서 공간이 자리한다.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책을 읽고 있으면, 바쁜 일상으로 지친 마음이 저절로 '스근해진다'.

역사가 종말 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두 공간이 시간을 달려 현실 세계의 삶 속으로 어떻게 다시 스며들게 되었는지 부산근현대역사관을 통해 살펴봤다. 지난 소식지 원고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계 위에서 있는 경계인이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그 시간의 경계에도 어김없이 서 있다. 이제는 시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의미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게 된다. 인간의 죽음이 지구의 소멸이 아니듯이, 우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과거, 현재와 미래는 공존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살아갈 것이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길에 ‘나’를 세우자

남영란 | 노동해방 마중

제노사이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2023년 10월 7일부터 근 10개월간 이스라엘이 자행한 집단학살이 3,524건, 사망자 4만 명, 잔해터미에 깔려 있을 실종자가 1만 명에 이른다. 영양실조와 식량부족으로 사망위험에 처한 아동 숫자 3만 5천 명, 강제이주로 전염병에 감염된 이들의 숫자는 170만 명을 훌쩍 넘는다. 6만 명의 임신부와 35만 명의 만성질환 환자가 의료지원부족과 의약품 반입 불허로 위험에 처해있다. 이스라엘 학살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70%는 여성과 아동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강제 대피령과 계속된 폭격, 탱크와 불도저로 땅을 밀어 버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하마스 지도부 2명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스스로 안전구역으로 지정한 알-마와시에도 폭격을 가해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의료시설과 병원, 주택 등은 정확히 타겟팅 된 폭격에 의해 폭파되고, 구급차가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만이 아니라 서안지구에 대한 공습도 강화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의 근간에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는 정당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6년간의 점령상태를 끝낼 생각이 없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밀어내고 온전한 대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허구적인 대립구도, 이스라엘의 학살에 동조하는 이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심지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에 비판적인 이들조차도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대 하마스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를 인정한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기를 내걸던 1948년으로부터 76년, 더 멀리 간다면 영국의 식민지배하에 있던 100년, 가깝게는 1967년 전쟁으로부터 57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주권을 가진 바가 없다. 오랜 세월 팔레스타인들은 피점령자였고, 피식민지배자였다. 그리고 억압받는 자로서의 저항이 이어져왔다. 10월 7일 하마스의 행동은 지난 10개월간의 집단학살의 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76년간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의 결과이다. 피점령지인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에 세우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점령하고 있는 자,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는 자, 불법 정착촌을 확대하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고 그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하는 것만큼 명백한 것이 어디 있는가. 미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엄청난 무기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동조행위를 중단해야 피의 살육이 멈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선박이 드나드는 홍해를 봉쇄한 예멘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은 연합군을 형성해 예멘을 폭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사유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 독일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부정하고 나섰다. 결국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피점령



Activestills.org



한국 현대의 불도저가 팔레스타인 가옥을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인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에 세움으로서 그 책임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에게 씌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대인과 아랍인, 유대교와 이슬람교라는 대립구도 역시 현재의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에 동조하게 한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반유대주의다'라는 낯선 비판은 유대인과 아랍인이라는 대립이 의도된 것임을 확인시킨다.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이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세속주의 전통이 강하다는 것, 하마스 또한 중동을 이슬람국

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과 독일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이슬람을 무기 삼아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며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아랍국가들 일부 또한 자국의 이권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을 멈추는 것, 강제추방된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넘어 모든 억압 받는 이들의 해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EXISTENCE IS RESISTANCE

팔레스타인 민중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한 저항을 멈춘 적이 없다. 1987년부터 근 6년간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돌맹이를 던지며 싸워 '돌들의 혁명'이라 불렀던 1차 인디파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총파업, 이스라엘군 민정기구에 대한 보이콧, 이스라엘 면허를 받은 팔레스타인 차량 운전기부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항했다. 2000년부터 5년간 이어진 2차 인디파다, 2018년 가자지구를 봉쇄한 분리장벽을 향했던 '귀환 대행진' 등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와 노동쟁의와 파업, 상인들의 상가 철시, 학생들의 동맹 휴업, 이스라엘 감옥에 투옥된 정치범들의 단식 투쟁들을 결합시켰다. 그리고 2005년에는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의 군사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종식, 이스라엘 건국 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 보장을 목표로 세계시민사회에 BDS운동-보이콧(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s)-을 호소했다. 이스라엘은 BDS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을 찍고 국제연대 운동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BDS를 불법화하는 법 제정을 로비하여 미국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을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게 만들었다.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봉기와 저항에 대해서는 테러라고 이름붙이며 이스라엘의 학살에 동조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BDS



운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의 해방운동도, 국제연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민중들의 봉기에 총과 로켓, 탱크로 응수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을 멈출 수 없었다. 무장투쟁이든 비폭력 저항이든, 불복종 운동이든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투쟁은 피와 죽음을 불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을 멈출 수 없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향해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곱씹어본다. 마사페르 야타의 한 주민은 “자유롭게 내 땅을 거닐고 싶다. 내가 가꾼 식물들이 내일도 안전하게 살아 있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삶의 문제이며,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며 내쉬는 한숨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마취제도 없이 팔다리를 잘라낸다는 소식이 주는 고통으로, 가옥을 부수고 있는 HD현대 로고가 적힌 굴삭기를 보며 드는 불편함으로, 전쟁과 학살을 자양분 삼아 굴러가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팔레스타인을 만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저항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부정을 직시하며 더 넓은 시야로 우리가 내딛어야 할 걸음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팔레스타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향으로 인도할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의 무엇인가가 팔레스타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힘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동맹국, 즉 미국은 서로를 도우며 체계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유투사 레일라 칼레드의 말처럼,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시스템을 세계화하는 한 우리도 우리 시스템을 세계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들어 갈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과 토지 수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일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마지막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런 집단 학살이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되도록 합시다.”

-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활동가, 림 자이툰 / 출처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윤석열의 친일매국 행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김동윤 |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보

8.15 광복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보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초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대법이 판단한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에 이어 사도광산 등재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더니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는 지경이 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광복회, 야당까지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정부 주최의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아무런 메시지 없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공식화함으로써 '8.15 통일 독트린'이 아닌 '8.15 대결 독트린', '전쟁선포'로 귀결되었다. 야당 대표들이 지적했듯이 가히 '일제 역사 세탁에 앞장서고 있는 조선총독부'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 훈련인 '울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블랙호크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5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미 공군 F-16 파이팅 팰콘이 1일 한국 오산비행장에 착륙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는 친일매국 행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완성의 마지막 과정이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할 때 반일감정을 유발할 독립운동이나 독도 문제를 일본의 입장에 맞게 고쳐가고 있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보의 본질인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논란이 되는 의제와 이슈를 또다른 의제와 이슈로 덮어 왔던 윤석열 정부가 들이내밀 다음 카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다.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매년 3월과 8월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울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은 오는 8월 19일(월)부터 29일(목)까지 진행됐다. 훈련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UFS 훈련은 1부 정부연습(울지연습)이 19일~23일, 2부는 군 단독으로 26일~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정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되고, 2부에서는 쌍룡연합상륙훈련, 통합화력훈련을 비롯해 지상,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 총 48건의 야외기동훈련(FTX)이 실시된다. 또한 매년 한미연합군사연습에서 확인했듯이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군 전력과 연합훈련



▲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에서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만·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에서 육군 50사단 장병과 경찰특공대원들이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지하다시피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미당국이 얘기하듯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유사시 대북선제공격과 지도부 전면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장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명백한 침략전쟁 연습이다. 특히 올해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접경지역 포격훈련이 진행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구모 연합군사훈련이다.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핵시나리오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포함된 연합군사훈련을 지향

이번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주목을 받았던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가 적용과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여부였다.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핵공격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TTX)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핵 대응 내용이 없다고 밝힘으로서 핵 작전 연습을 주

장해 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머쓱해진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이 진행하기로 한 ‘프리덤 에지’와 연계된 다영역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만약 3국 군사훈련이 이번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진행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넘어 대규모 한미일 연합전쟁연습이 정례화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우려한 탓인지 이번 훈련에서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정부당국이 발표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3국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는 이미 한미일 당국의 합의사항으로 향후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을지프리덤 훈련에서 핵시나리오 작전과 한미일 3국 훈련이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한미 당국의 움직임을 유추한다면 향후 3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핵 사용을 가정한 선제핵타격 훈련, 한미일 3국이 함께 추진하는 연합군사훈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 윤석열 정부는 ‘동맹’이라 부르지 않는다

지난 7월 28일,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하면서 한미일은 군사협력을 넘어 사실상 동맹을 완성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동조화하겠다고 하며 사실상의 동맹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협력각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협력을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프리덤 에지’를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 훈련연습인 ‘프리덤 실드’ 훈련과 미일 훈련연습인 ‘퀸 에지’ 훈련이 통합되어 진행되는 연례군사훈련이다. 협력각서는 한미일 3국이 안보를 위해 협력할 내용, 범위, 역할, 책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를 문서로 만들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북과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동맹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일,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논평을 썼다가 내외의 반발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하는 일이 있었다. ‘동맹’, 특히 일본이 포함된 ‘동맹’을 공식화했다가는 국회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폭발시킬 우려에 몸 사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성되었지만 한일동맹이라는 실체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구축,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침없는 친일매국 행보의 종착점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라 지적한 바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과정으로 3각 군사동맹이 실제화 될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가 전쟁발발의 최정점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고 유엔사 확대와 유사시 참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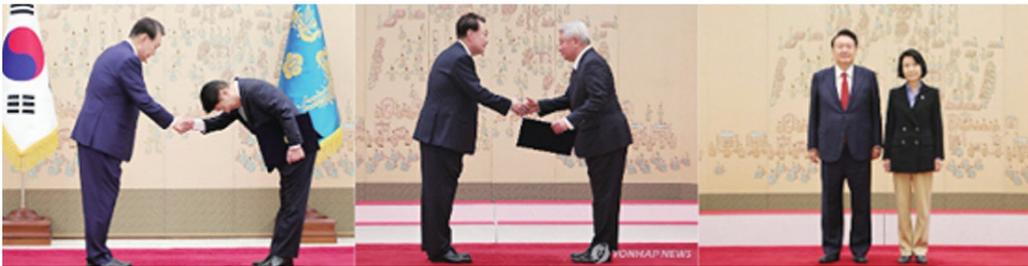
언론장악, 언론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김보영 | 부산민주언론연합 정책팀장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키맨(keyman)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장악'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라고 부르기도 머쓱할 정도로 윤 정부의 '언론장악' 행보는 노골적이다. 윤 정부 언론장악의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흔들기였다. 방통위는 KBS의 이사 추천권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지기에, 권력이 의도를 갖고 방통위를 장악하면 공영방송 이사진을 꾸리고 결국 사장을 입맛대로 선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어졌다. 사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될 때까지의 윤 정부의 노골적 행보만 보아도 기가 찰 노릇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코드를 앞세워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방통위원장을 고발, 검찰은 이때다 싶어 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이어진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장의 면모는 어떠했는가?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왼쪽부터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언론계 사찰과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며 언론인들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인물인 이동관,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대통령의 친한 형님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 세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정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역대 최악의 공직자로 기록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보도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하며 민영화까지 추진했던 인물이다. 또 8년간 수익 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유용한 혐의를 받으

며, 관용차 사적 사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는 대답만 반복하며 이를 증빙할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진숙 위원장의 행태는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역대 최악의 공직후보자의 모습이었다.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법인카드·관용차 부정 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인식,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등 상식적 공감능력과 역사인식에서도 한참을 벗어난 인물이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동안 방통위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직자 기준이 점점 후퇴되는 것 같아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출근 10시간 만에 비공개 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를 선임을 진행했다. KBS에 이어 MBC도 장악하겠다는 이진숙 위원장의 제1 임무를 아무지게 진행한 것이다.

다시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다

KBS에 이어 MBC도 파탄?

이런 비상식적인 행보는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무력화시킨다.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책무를 가진 공영방송, KBS, MBC, EBS는 그야말로 국민의 자산이다. 국가적 재난과 참사에 적극 대응하고, 힘을 가진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조망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공영방송에게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공영방송 KBS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목도했다.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수신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분리징수 되었고, 갑자기 사장이 바뀌고, 메인 뉴스 앵커와 출연자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교체됐다. 국민 모두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의혹을 ‘조그만 파우치 논란’이라 축소해 말하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을 점검하려 했으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방송 불가를 결정했다. 이제 KBS에 이어 MBC도 같은 행보를 거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7월 11일 열린
<MBC 힘내라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남긴 응원메시지
(사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반나절 만에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로 선임한 윤길용 전 MBC 시사교양국장, 이우용 전 MBC 라디오본부장은 MBC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1년 최승호 PD에게 'PD수첩'에서 나가라고 했고, 김미화 진행자 라디오 하차 등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이에 MBC PD협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과 함께 7년간 MBC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온 두 주역인 윤길용, 이우용을 방문진 이사로 컴백시켰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도 없었으며,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반복되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스템의 변화 필요

결국, 언론장악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공공성을 걱정하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해왔다. 가깝게는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정부와 정당 등 정치권에 독점된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언론 현업 단체 등으로 분산하고 이사 수를 지금보다 확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보자는 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방송3법 개정안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방송4법' 통과되었다. 이는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 사장 임명, YTN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전횡을 일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그간 한국 공영방송은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 시사와 보도프로그램의 논조가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권교체마다 '장악'논란을 반복해오고 있다.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방송법' 제1조가 밝히고 있듯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사진: 연합뉴스)



방송4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했고, 다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볼 보듯 뻔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령 이번엔 거부하더라도 제3, 제4의 방송법은 계속 발의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언론의 공적책무를 공영방송에게만 맡길 순 없다 건강한 언론생태계 회복 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얼마 전 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으로 종편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언론인단체들도 성명서를 내며 야당대표의 발언의 무게를 생각하라며 반발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사익을 위한 언론 비판은 당연히 사절이다. 하지만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받아쓰기만 하는 관행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성찰은 없고, 단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별때처럼 일어서는 모습은 과히 보기 민망했다. '언론'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인가? 그럼 동료기자들이 정권에 의해 취재가 제한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는 것에는 왜 침묵하는가?

정권이 휘두르는 언론탄압의 경지가 너무 참담하여 자칫 언론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난이 의도치 않게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닐까 내심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열심히 권력감시에 애쓰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또 다른 무게를 지우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공영방송에게만 맡길 순 없다. 이미 '기사 장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언론을 향해 공적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철 지난 구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함께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회복하자고, 그래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로 정부를 심판해도, 지지율이 땅을 뚫을 기세로 곤두박질쳐도, 보수언론까지 합세해 대통령실의 몰이해와 무능력을 비판해도,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며 폭주하는 윤 정부를 함께 막아보자고 외치고 싶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8월,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는 다시 광장에 섰다. 폭주하는 윤 정부가 나라를 망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것. 다시 광장에 설 수밖에! 🇰🇷

부산민언련이 진행한 '이진속OUT'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 한 시민들(사진: 부산민언련)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이야기

시민·회원사업 담당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과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접수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을호의 사진과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QR코드로 간편 접수하기



이*님 2021. 08. 15

부산에 살면서도 민주공원 나들이는 처음이었어요. '코로나그램' 이라고 전시가 있었는데, 플라스틱병으로 뭉쳐진 덩어리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님 2024. 4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겍벚꽃을 보러 민주공원에 가고 있어요 ^^
올해도 피크닉 매트 가지고 애들과 함께
겍벚꽃을 즐기고 왔답니다 ^^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서 딸이 상도 수상했어요.
추억이 가득한 민주공원이에요!



조*영님 2017. 3월

2살 된 손자를 데리고 민주공원에 자주 놀러 가신 시부모님~! 4·19광장에서 슬래잡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변*자님 2018. 10. 09

2013년에 태어난 저희아이의 첫 공원인 민주공원! 아이가 어릴 때 중구에서 키우면서 마을버스를 타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2015년 어린이날 행사를 알게 되어 5월 5일 어린이날은 계속 민주공원을 가게 되었고, 개천절 평화대잔치에도 갔지요. 올해는 장승 체험도 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



변*숙님 2015. 04. 15

2015년 박종태 열사 6주기 민중문화제 때 함께 한 통약 아이들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노동열사 정신 계승 특별전시회 <투쟁의 심장으로 다시 살어나>도 함께 준비했었지요. 무대에 서기 위해 함께 연습하고, 서로를 챙겼던 아이들이 너무 예뻐네요~ 이제는 저 친구들이 훌쩍 자라서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훈님 2024. 04. 24

민주공원에서 자주 가고 좋아하는 장소가 옥상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북항과 부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민주열사 기억하기 프로젝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6월 24일(월)부터 7월 23일(화)까지 카카오톡이가치에서 <민주열사 기억하기 프로젝트>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민주열사를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일찍 달성하였습니다. 모금액으로는 민주열사의 집에 명패를 다는 활동은 물론 송고한 민주희생 정신을 계승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식민지구 2024 - 하나의 인류는 행복하라

환경, 생태, 생명을 주제로 한 지구예술인의 예술 발언 민중미술 2024 두 번째 섹션인 <식민지구 2024 - 하나의 인류는 행복하라>가 8월 10일(토)부터 8월 31일(토)까지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울산지회, 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회,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 추천 작가인 30여 명의 작가가 25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식민지구'라는 제목은 성찰적이고 도발적인 개념입니다.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다양한 종 가운데 하나인 인류가 전 지구를 식민적으로 착취하고 있고, 그 결과로 문명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뼈아픈 성찰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채굴 가능한 자원이 아닌, 깊은 의미를 나누는 꿈의 장소로 여길 수 있을까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참배

6월 28일(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넋기림마당에서 참배했습니다. 이철수 위원장을 포함해 각 지부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참배 후 이철수 위원장은 "선배열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지영석 부위원장은 "당신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수석부위원장은 "열사님들의 뜻을,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 청년회 민주공원 방문

7월 12일(금) 제주 4·3 희생자유족 청년회가 2024년 4·3 세대전승을 위한 평화·인권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부산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넋기림마당에서 민주열사와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이동 일 민주공원 관장의 안내를 따라 민주공원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참배 후 고경호 4·3청년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최재현 제주4.3청년회 상임부회장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항상 그립습니다. 모두”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근태재단 광주·전남지부 민주공원 방문

7월 20일(토) 김근태재단 광주·전남지부에서 민주공원을 찾아 민주열사와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민주공원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김근태재단 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 김성인 외 일동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 후배들이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시장은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남겨진 후배들이 잘 해내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남호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은 “송고한 의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영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은 “피와 땀의 희생의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대만2.28기념사업회 관계자 민주공원 방문

7월 30일(화) 대만2.28기념사업회 란소보 집행장과 정내위 처장이 민주공원을 찾아 민주열사와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 각 팀장들과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대만2.28기념사업회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공원 방문

8월 2일(금) 김성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민주공원을 찾아 넋기림마당에서 민주열사와 호국영령에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 방명록에 “부마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부산 시민의 송고한 민주 희생 정신을 기리며 고개 숙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 후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과 함께 민주공원을 둘러보고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부마-5·18 '민주역사 계승' 연대를 위한 간담회

8월 16일(금) 민주공원에서 부마-5·18 '민주역사 계승' 연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최갑순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함께했습니다. 넋기림마당에서 민주열사와 호국영령에 참배한 후 늘펼쳐보임방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화로 민주주의 꽃 활짝 피우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문의 www.ohminju.or.kr | ☎ 051) 790-7477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www.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



행사, 교육활동
우선알림과 혜택



회원 간 교류활동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이달의 민중미술 작품
문자 발송(월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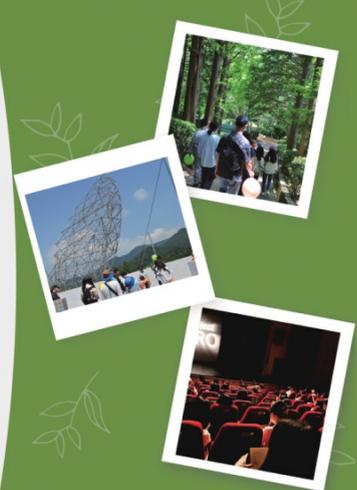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공연, 전시 관람
특별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민주공원 x 반려동물 사진 · 이야기 접수 이벤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는 올해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한 순간을 되돌아보고, 쌓아온 추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한 사진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선정을 통해 음료교환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 ◆ 신청기간: ~ 10. 31.(목)
- ◆ 신청: 온라인 → <https://naver.me/GbrhH5ZD>
- ◆ 선정: 접수 후 SMS로 선정 결과와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받는다.
(2024. 8월 ~ 10월 수시 발표)
- ◆ 문의: ☎ 051-790-7473(시민 · 회원사업 담당)



— 문의 www.facebook.com/groups/IDSDEMO | ☎ 051) 790-7482

〈부산지역 시민단체 소장 기록물 현황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민주주의사회연구소는 지난 8월 14일 수요일 민주공원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 소장 기록물 현황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기록관) 건립에 맞춰 시민운동단체의 기록물 현황을 조사하고 목록화함으로써, 향후 기증 사료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3년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은 '부산민예총'과 '부산민주연론시민연합'(이후 '부산민연련')이 소장한 기록물로 조사 및 목록화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6~7월 동안 이루어진 '부산민예총' 소장 기록물 목록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8~9월 동안 진행하는 부산민연련 소장 기록물 목록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확인한 기록물은 문서 1,002건, 미술작품 22건, 박물 27건이었으며, 검색 및 활용이 쉽도록 키워드를 많이 추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시민단체의 기록물도 시민의 재산으로 보존 ·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소장 기록물 현황을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4 부산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09월: 10월 09일 10:00 ~ 12:00
 10월: 10월 20일 10:00 ~ 12:00
 11월: 11월 03일 10:00 ~ 12:00
 12월: 12월 17일 10:00 ~ 12:00
 *월요일 휴무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09월: 10월 09일 10:00 ~ 12:00
 10월: 10월 20일 10:00 ~ 12:00
 11월: 11월 03일 10:00 ~ 12:00
 12월: 12월 17일 10:00 ~ 12:00
 *월요일 휴무

민주공원 숲해설
 09월: 10월 09일 10:00 ~ 12:00
 10월: 10월 20일 10:00 ~ 12:00
 11월: 11월 03일 10:00 ~ 12:00
 12월: 12월 17일 10:00 ~ 12:00
 *월요일 휴무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
 09월: 10월 09일 10:00 ~ 12:00
 10월: 10월 20일 10:00 ~ 12:00
 11월: 11월 03일 10:00 ~ 12:00
 12월: 12월 17일 10:00 ~ 12:00
 *월요일 휴무

체험 신청안내
 신청방법: 전화 (문의: 051-790-7400) 또는 온라인 예약 (demopark.or.kr)
 예약기간: 프로그램 신청일전 30일 전~신청 전
 민주항쟁기념관 유관장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체험프로그램 1차 및 2차 신청 가능 (※ 단체 신청할 경우, 담당자가 별도 별도)
 체험문의: 051-790-7400 (평일 9:00~18:00)

2024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5일 전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펼쳐보임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2.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3. 민주공원 '가을' 숲체험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 보고,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숲체험

4.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 곳곳에 위치한 기념식수를 찾아보는 교육 프로그램

사랑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밤의 회상
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

2024.9.6.(금) - 10.20.(일) *평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김남진, 김성철, 김명연, 김효연, 문지현, 박경민, 어윤기

기획전시 《사랑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밤의 회상 (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

- ◆ 9월 6일(금) ~ 10월 20일(일), 10:00 ~ 17:00(월요일 휴관)
- ◆ 민주공원 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이번 전시는 밤과 기억이라는 친근한 주제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참여 작가 7명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선명해지는 감성과 기억들을 설치미술, 입체,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관람객들이 밤의 고요함과 감정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울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가득차던
밤은

KIM Namjin

KIM Sungchul

KIM Jungmin

KIM Hyeoun

MUN Jihyeon

PARK Gyeongin

LEE Kwangkee

김남진

김성철

김정민

김효은

문지현

박경인

이광기

주
밤은

밤의 회상

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

2024.9.6.(금) - 10.20.(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민주공원

진행 Muut Studio

“

민주공원은

상징과 시공간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원도심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